

‘New world food show’ 현장을 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3개 업체 참여



국내의 식품업체가 참여한 ‘뉴월드푸드쇼 2002’가 지난 3월 18일, 19일 이틀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2층 전시회장에서 열렸다. 미국대사관 농업 무역관에서 주관한 이번 식품 전시회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의 식품 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가 참여해 국내 식품 산업의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식품전에 출품한 업체들은 유제품, 초콜릿, 건조과일, 육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였다.

구르메F&B코리아(주)는 뉴질랜드산 치즈 제품을 전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업체는 수공작업을 통해 생산한 크림치즈, 흰색곰팡이 치즈, 블루 치즈 등 10여 개의 치즈제품을 선보였다.

베이커리 관련업체 가운데 팍탁인터내셔널이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을 출품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초콜릿 장식물 수입업체인 주빌리(주)는 토마토, 감자, 초코 곡물을 함유한 프리믹스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앞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키미코리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미국산 농산물 재료를 출품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업체는 견과류와 건조과일류, 냉동과일류를 주력제품으로 선보였다.

식품전에 참여한 4개국의 식품업체는 전시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독점수입업체를 모집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이번 식품전에서 국내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해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유통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참가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방문했으며, 대부분이 식품관련업체 종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시회장 곳곳에서 유통가공업체,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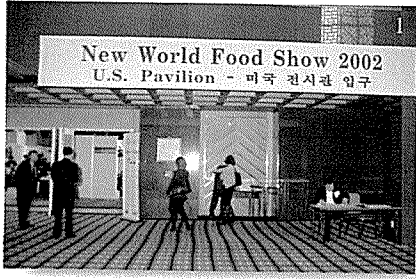
품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무역상담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번 전시회는 실제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대거 관람함으로써 출품업체에게 내실 있는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미국 대사관의 오상용 홍보담당관은 “식품전시회가 국내의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무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개최목적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개최된 식품전시회에 베이커리 업체의 참여율이 부진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출품업체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한정돼 있어 내년 식품전에서는 다른 국가의 식품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전시회가 국제적 규모의 식품 전시회로 발돋움해 향후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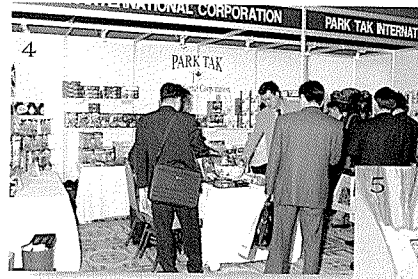
〈취재 / 임희정 lim@mbakery.co.kr〉



1. 미국 전시관 입구



2. 식품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시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인파로 북적였다. 육류 및 각종 해산물을 선보인 업체가 시식행사를 통해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3. 미국산 건조과일 및 견과류 제품을 선보인 (주)키미코리아 부스.



4. Park Tark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20개 이상의 캐나다 회사의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과자, 음료, 건강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했다.



5. 6. 제과제빵 관련 업체인 Weston Food Ingredients의 국내수입업체인 주빌리(주)가 6가지 종류의 제빵용 프리믹스 제품을 선보였다.



7. 8. 9 식품료 및 유기농산물, 통조림 등 다양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